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차 은 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 Sexual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Eun-Seok Cha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methods to control, regulate and prevent sexual violence and provide guidelines for sex education in middle schoo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in relation to sexuality, attitudes toward women, experience of sexual contact, frequencies and kinds of pornography with which they had contact, and sex education. For the data collection, a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5 to October 1, 1997 by using prepared questionnaires.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503 students from three different kinds of middle schools in Seoul, Boys, Girls, and Coeducation schools. The data analyses used a PC-SAS. Each item was examined by frequencies and percentage. To compare Boys with Girls, I applied a T-test. In addition, with the kinds of school type, I applied anANOVA, χ^2 . Moreover, For investigating and analyzing each category, I categorized knowledge and attitude of sexuality, with precautionary measures of sexual violence. After that I applied T-test, ANOVA, and a Pearson's correlation for each category. The instrume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9 domain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2) 9 questions about the interaction between he/she and his /her parent. (3) 12 questions, concerning A Scale for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women (AWSA). (4) 26 questions related to sexual knowledge. (5) 25 questions about sexual attitude (6) strategies for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33 questions (7) 5 questions related to sexual behavior (8) the experience of contact with pornography. (9) the experience of sex education. The major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Like many researches, This study shows that the girls are more equalitarian than boys. The girls mean (40.90 ± 3.67)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boys (34.72 ± 3.77). Most Koreans have believe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men's roles and women's ones, because of confucianism which had been implied in most thought and ideas since the Lee dynasty. Therefore, the result is not surprising at all. 2. Most students answered correctly the questions of sexual knowledge. The girl's score was higher (Mean \pm SD : 48.88 ± 2.39) than the boys' (Mean \pm SD : 46.95 ± 3.90) (p < 0.001). Nevertheless, the hypothesis that sexual knowledge influences sexual attitude and its behavior was rejected. 3. When twenty-five questions were asked about sexual attitude, the girl students investigated were found to have a more proper sexual attitude than that of the boy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boys and girls (p < 0.001). The result shows that a person who has more experience in viewing pornography and who smokes will have a more distorted view of sexuality. 4. There are many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of sexual contact. They need to take a sex education program about contraception and prevention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ystematic and concrete sex education is one way to lead them to proper sexual behavior. 5. Most respondents rejected stereotyped attitudes towards women. Boys,

however, were more likely to accept stereotypes of Women. The girl's mean (Mean \pm SD : 40.90 \pm 3.67) is higher than the boys(Mean \pm SD : 34.72 \pm 3.77) ($p=0.0001$). 6. Many boys ignored the rules for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 boy or a girl who has more experience of sexual contact over kiss and sex-typed neglected the rules, too ($p=0.001$). Today, there is increasing juvenile delinquency related to sexuality. This study provided the basic material for a preventive education system. I believe that a systematic and concrete sex education system can be helpful for adolescents and promote their responsibility as well as cultivate morality about sexuality. As a result, juvenile delinquency can be decreased. This study is basically aimed to provide information for a preventative education system of sexual violence. Further research is recommended to evaluate programs in schools.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간은 사회 문화적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사물의 가치, 그리고 인식 유형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성은 인간을 이루는 기본적·필수적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보다는 동·서양 모두에서 공공연히 말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시 되어져 왔다. 특히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가정교육의 범주에서 은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남녀에게는 각기 다른 성윤리를 적용시켜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그동안 성적으로 불평등했던 가족제도와 사회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여 남녀에게 차별적 성윤리규범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을 상품화한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또, 사회규준의 갑작스런 영향력 감소로 인한 성혁명 및 외래에서부터 들어온 성개방풍조등도 우리사회에 혼재하고 있다(성폭력 예방 지도교육 자료, 1996; 성의 심리학, 1995).

사회의 이러한 성문화 및 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청소년층이다. 성에 대한 책임과 인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된 성자식과 성정보를 알려주는 여러 매체들을 접하게 되고 이성교제가 쉬우며 과거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이르게 되는 신체적 성숙은 성적 호기심과 경험기회를 제공하여 성적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켰고(이순열, 1995) 이로 인해 성교연령이 낮아지고 십대 임신과 성폭력, 성병 등이 증가하고 있다(WHO, 1986; 최순희, 1990). 법무연수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성범죄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약간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강도 다음으로 강간범죄가 많

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또한 청소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자료를 살펴보면 1995년 상담을 해왔던 전체 10,210건 중, 20세 이하 피해자는 48.7%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한국 성폭력 상담소, 1995). 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여중생의 2.4%가 성폭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7. 7. 24, 중앙일보).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그간 실시해 온 성교육의 많은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편으로는 성폭력 가해자가 또, 한편으로는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아직 어렵다고 보는 중학생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최근 청소년 성비행과 십대임신, 성폭력 문제등의 증가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 학교 성교육은 처음에는 정결교육, 순결교육이란 명칭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나, 1982년부터 성교육이란 정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 실시는 이제 사회적·시대적 요구이며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기 위하여 1997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중학생용 성교육 교과서 '성과 행복'을 출간했다. 그러나 성교육 전담교사 및 전문교사의 부재, 지도교사들의 성에 대한 지식부족 및 태도의 경직, 성교육에 대한 개념부족등으로 인해(최선영, 1993) 학교 성교육은 아직도 남녀의 신체구조나 이차성징에 대한 내용만을 가르치는 데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성교육을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에 관한 부분은 교사 스스로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녀에게 다른 이중적 성윤리를 적용하면서 성폭력 신화를 신봉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성폭력을 나와는 상관없으며 밤에 행실이 나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폭력은 더 이상 우리와는 거리가 먼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에 입각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과 총체적 성교육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의 성교육은 학생과 지역사회 요구의 적극적 수용(Ogletree, 1995)을 토대로 첫째,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둘째, 이러한 성지식을 토대로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셋째 건전한 성태도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평등, 존경, 협력 그리고 신뢰의 바탕을 키워 상부상조하는 남녀관계 형성 및 장차 행복한 가정·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양성숙, 1990).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건전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일생의 행·불행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을 정화하고 보다 좋은 사회를 이루하는 데 보탬이 된다(구자옥, 1991). 따라서 성교육은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 구조나 기능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통합교육으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실시되어져야 할 것이다(김미주, 1997).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 그 중에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성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으며 특히 대상이 성폭력加害者, 피해자가 아닌 일반 중학생들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 의해 제공되는 결과는 앞으로의 실시될 총체적 성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여성관, 성교육, 성행동, 중학생들의 성폭력 예방수칙 준수정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총체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에 대한 중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위를 파악한다.

2.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을 파악한다.
3. 성폭력 예방수칙 준수정도와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성지식·성태도·성행동과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중 남자 중학교 1개교와 여자 중학교 1개교, 남녀공학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3학년을 대상으로 집락추출법에 의해 남·녀 3개 반씩(남녀공학의 경우 6개반)을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997년 9월 25일부터 1997년 10월 1일까지였으며 각 학교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조사 실시하였다. 총 5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중, 미회수와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503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용어정의

1)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학술적 성격을 갖지 않은 성에 관한 정보나 화상으로서 시청각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관련 대상물로서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게 되는 성인용 또는 음란 비디오나 출판물을 의미한다.

2) 성추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성기나 가슴 등을 만지는 식의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중학생 대상 성교육 교과서인 성과 행복, 중학교 성교육 자료(1993), 성교육(서울특별시 간호사회, 1996), 성폭력 지도 교육자료(정무장관 제2실, 1996), 성교육 지침(서울시 교육청, 1996) 및 선행연구와 기존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항목은 크게 9개영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8개 문항, 부모님과의 관계 9문항, 여성관 12문항, 성지식(○, ×) 26개 문항, 성폭력 예방 수칙 준수에 대한 33개문항, 성태도 25개 문항, 성행동 5개 문항, 포르노그래

과 노출경험 1개 문항, 성교육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양성숙(1992), 박성정(1996)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대상자의 성별과 학교유형, 현재 동거 가족, 성적, 종교, 중학생의 일탈행동과 약물오용의 시작(gateway drug)으로 볼 수 있는 담배(흡연), 술(음주)에 관한 문항으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2) 부모님과의 관계

청소년 문제는 대부분 부모님이나 가정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부모와의 충분한 대화는 청소년의 성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 종교, 학력, 직업 등 일반적 사항과, 부모와의 친밀정도(관계), 대화정도, 대화내용, 교우관계 및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폐악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여성관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성에 따라 역할이 달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WSA(Attitudes toward Women scale for adolescents)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2/3는 소년 소녀의 행동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성인의 역할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7개의 문항이 여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5개의 문항은 현재의 견해인 남녀평등관에 기초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대답은 4단계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문의 신뢰도 계수의 범위는 남학생의 경우 $\alpha = .71 \sim .86$ (평균: .78)이고 여학생의 경우 $\alpha = .62 \sim .85$ (평균: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alpha = .77$ 이었다.

4) 성지식

성지식 측정은 중학생이 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지식에 대해 진위형으로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맞으면 2점, 틀리면 1점으로 배점하였다. 득점의 범위는 26점부터 52점까지이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7문항(1번~7번), AIDS 및 성병 7문항(8번~14번),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지식 8문항(15번~22번), 성폭력 피해후 알아둘 일 2문항(23번~24번), 성충동 조

절 2문항(25번~26번) 등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alpha = .61$ 이었다.

5) 성태도

성태도에 관한 문항은 박현이(1996), 장광미(1996)의 선행연구와 초·중·고 성교육지침(서울특별시 교육청, 1996), 성과 행복(서울특별시 교육청, 1997) 등 관련자료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성태도는 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10문항(1번~10번), 성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10문항(11번~20번),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대처 태도 5문항(21번~25번) 등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5단계 Likert척도를 이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alpha = .81$ 이었다.

6) 성행동

중학생의 성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광원(1990), 문화체육부(1995), 박성정(1996)의 선행연구 및 연구자가 남녀공학 중학 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기존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성행동에 관한 문항은 성접촉 1문항, 성추행 3문항, 성충동 1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7) 성폭력 예방수칙 준수

중학생들이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수칙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상황에 대한 기존의 성폭력 예방수칙을 3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내용은 각 상황(I. 혼자 집에 있을 때, II. 이성 친구 방문시, III. 집밖에 외출 할 경우, IV. 교통수단 사용 시 이용시, V.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VI. 기타)의 경우에 문항과 같은 행동을 하겠는가를 물었다. 행동에 관한 응답의 범주는 5단계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alpha = .93$ 이었다.

8) 포르노그래피 접촉 경험

음란 영상 출판물에 관련한 질문은 먼저 포르노그래피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 종류, 최초 경험시기, 여름방학 동안 본 횟수, 처음으로 본 장소, 소유 유·무, 처음에 보게 된 동기, 자신이 포르노그래피를 본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9) 성교육

성교육에 대한 문항은 Parcel & Coreil(1985), 양성숙(1992), 박성정(1996), 김미주(1997)의 선행연

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관련문헌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항목과 성에 관한 내용 중 실제적이라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예시로 들고 그 중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을 3가지씩 고르라고 하였으며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처음 받은 장소, 시기, 만족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4. 자료 처리 방법

본 조사 결과는 PC-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를 구한 후,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와 χ^2 를, 학교 형태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와 χ^2 를 실시하였다. 또 성지식, 성태도, 성폭력 예방수칙을 항목별로 categories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5.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중학생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본 설문지는 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을 금기시하는 우리의 성문화로 인해 결과가 과장 또는 축소되었을 수 있다.

III. 결과해석

1. 일반적 특징

1) 부모의 일반적 특징

조사대상이 된 학생들 부모의 종교를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기독교 29.2%, 천주교 9.2%, 불교 29.6%, 종교 없음 30.2% 기타 1.8%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학력이 초등졸 이하인 경우가 7.2%였고 중졸이 11.5%, 고졸이 56.5%, 대졸이 19.7%를 차지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초등졸 이하 9.2%, 중졸 25.6%, 고졸 52.7% 대졸이상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과 회사원, 전문직이 각각 26.8%, 24.7%, 8.0%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주부가 46.7%로 단연 높고 자영업 14.3%, 회사원 9.7

표 1. 부모의 일반적 특징

특징	대상별 일반적		남녀공학 N(%)
	남중 N(%)	여중 N(%)	
부모	기독교	29(25.7)	34(26.6)
	천주교	16(14.1)	7(5.5)
	불교	33(29.2)	43(33.6)
	종교 없음	33(29.2)	42(32.7)
	기타	2(1.8)	5(1.9)
부	초등졸이하	10(8.9)	10(7.8)
	중졸	11(9.7)	16(12.5)
	부 고졸	55(48.7)	79(61.7)
	대졸이상	29(25.6)	18(14.1)
	무용답	8(7.1)	5(3.9)
모	초등졸이하	12(10.6)	11(8.6)
	중졸	25(22.1)	43(33.6)
	부 고졸	57(50.4)	64(50.0)
	대졸이상	12(10.6)	8(6.3)
	무용답	7(6.3)	2(1.5)
부자	공무원	7(6.2)	7(5.5)
	회사원	30(26.6)	21(16.4)
	노동·생산직	10(8.9)	23(18.0)
	부자영업	28(24.8)	38(29.7)
	판매업	12(10.6)	10(7.8)
부	농·수산업	6(5.3)	10(7.8)
	기타	2(1.8)	2(1.6)
	주부	49(43.4)	58(45.3)
	직업	1(0.9)	0(0.0)
	회사원	6(5.3)	11(8.6)
모자	노동·생산직	8(7.1)	10(7.8)
	모자영업	18(15.9)	19(14.9)
	전문직	5(4.4)	5(3.9)
	판매업	13(11.5)	15(11.7)
	농·수산업	0(0.0)	1(0.8)
모	기타	13(11.5)	9(7.0)
	총 계	113(100.0)	128(100.0)
262(100.0)			

%순이었다.

2) 학생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 245명, 여학생 258명의 응답을 토대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학교 형태별로는 남중생 113명, 여중생 128명, 공학중생 262명이었다. 학생의 종교를 살펴보면 남중의 경우 '종교 없음'이 40.7%로 가장 높았고 여중이나 남녀공학은 기독교가 43.7%, 43.1%를 각각 차지했다.

가족 동거 형태를 보면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나 부모가 없거나 편부, 편모인 경우도 10%내외를

차지했다.

'방과후 집에 가면 어른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33% 정도가 '아무도 안 계신다'라고 대답하여

표 2. 학생의 일반적 특징

일반적 특징	대상별 남중 N(%)	여중 N(%)	남녀공학 N(%)
성별 남학생 여학생	113(100.0)	0(0.0)	132(50.4)
	0(0.0)	128(100.0)	130(49.6)
학생 종교	기독교	31(27.4)	56(43.7)
	천주교	11(9.7)	6(4.7)
	불교	23(20.4)	22(17.2)
	없음	46(40.7)	42(32.8)
가족동거 편부 또는 편모	부모 모두 계십	99(87.6)	115(89.8)
	형태 부모 안 계십	1(0.9)	2(1.6)
	무응답	5(4.4)	1(0.8)
집에 어른 무	귀가후 유	80(70.8)	85(66.4)
	집에 어른 무	33(29.2)	43(33.6)
총 계	113(100.0)	128(100.0)	262(100.0)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3) 이성교제 및 술·담배 경험

이성교제 및 술·담배 경험을 살펴보면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표 3과 같이 남학생 49.8%, 여학생의 48.1%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반 정도가 이성교제를 해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별로는 남중의 49.6%, 여중의 49.2%, 남녀공학의 48.5%에서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술을 마신 경험은 남학생의 78.9%, 여학생의 70.6%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끔씩 마신다'가 남학생 44.4%, 여학생의 39.5%였고, '자주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의 6.1%, 여학생의 4.7%였다. '날마다 마신다.'고 대답한 학생도 남학생의 1.6%를 차지했다. 학교형태별로 살펴보면 남중생 19.4%, 여중생 19.5%만이 마신 적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남녀공학중 학생의 32.0%가 마신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남학생의

표 3. 이성교제 및 술·담배 경험

	독립변수 종속변수	남 N(%)	여 N(%)	남중 N(%)	여중 N(%)	남녀공학 N(%)
이성교제경험 유 부	122(49.8)	124(48.1)	56(49.6)	63(49.2)	127(48.5)	
	120(49.0)	128(49.6)	56(49.6)	66(50.8)	127(48.5)	
총 계	245(100.0)	258(100.0)	113(100.0)	128(100.0)	262(100.0)	
마신 경험	없다	52(21.1)	76(29.4)	22(19.4)	25(19.5)	84(32.0)
	1번	65(26.5)	68(26.4)	34(30.1)	36(28.1)	63(24.0)
	가끔	109(44.4)	102(39.5)	46(40.7)	61(47.7)	101(38.6)
	자주	15(6.1)	12(4.7)	8(7.1)	6(4.7)	13(5.0)
	날마다	4(1.6)	0(0.0)	3(2.7)	0(0.0)	1(0.4)
	총 계	245(100.0)	258(100.0)	113(100.0)	128(100.0)	262(100.0)
술	부모	28(14.5)	37(20.8)	17(19.1)	26(25.7)	22(12.6)
	친척	22(11.4)	12(6.7)	10(11.2)	10(9.9)	14(8.0)
	동성친구	98(50.8)	88(49.4)	37(41.6)	45(44.6)	98(56.0)
	이성친구	11(5.7)	11(6.2)	7(7.9)	7(6.9)	8(4.6)
	부모+동성친구	12(6.2)	4(2.3)	6(6.7)	1(1.0)	9(5.1)
	동성친구+이성친구	22(11.4)	26(14.6)	12(13.5)	12(11.9)	24(13.7)
총 계	193(100.0)	178(100.0)	89(100.0)	101(100.0)	175(100.0)	
담배	없음	114(46.5)	163(64.3)	47(41.6)	77(61.0)	151(58.5)
	한번	45(18.4)	40(15.5)	20(17.7)	19(14.8)	46(17.8)
	몇 가끔	45(18.4)	32(12.4)	27(23.9)	22(17.2)	28(10.9)
	횟수 자주	13(5.3)	13(5.1)	4(3.5)	5(3.9)	17(6.6)
	날마다	28(11.4)	7(2.7)	15(13.3)	4(3.1)	16(6.2)
총 계	245(100.0)	258(100.0)	113(100.0)	128(100.0)	262(100.0)	

53.5%, 여학생의 35.7%가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중 '날마다 피운다'라고 대답한 경우도 남학생 11.4%, 여학생 2.7%나 되었다. 학교형태별로 보면 남중, '여중 남녀공학 학생중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41.6%, 61.0%, 58.5%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날마다 피운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남중 13.3%, 여중 3.1%, 공학중 6.2%인 것으로 나타나 남중의 남학생이 가장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부모님과의 관계

학생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며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이 학생의 친한 친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와 부모님과의 대화수준 정도 그리고 대화시간 등을 물어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나의 친한 친구를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가'를 물었더니 남학생의 86.9%, 여학생의 89.3%에서 '알고 계신다'고 대답하여 비교적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모르고 계신다'고 대답한 학생도 남학생 13.1%, 여학생 10.7%로 나타나 부모들의 자녀 친구파악에 대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과의 대화수준을 물었더니 남·여 학생 과반수 이상이 일상생활 이야기나 제한된 주제(예:성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39.4%에서 '비밀이야기 등도 한다'고 한다고 대답하여 남·여학생의 부모님과의 대화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주동안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물었더니 하루에 30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3시간 이상이 남학생의 45.1%, 여학생의 48.8%로 나타나 비교적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표 4.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친한 친구 파악정도	성별		χ^2 (p=)
	남 N(%)	여 N(%)	
잘 알고 있음	37(15.7)	39(15.4)	
조금 알고 있음	168(71.2)	187(73.9)	
잘 모름	27(11.4)	27(10.7)	
전혀 모름	4(1.7)	0(0.0)	
계	236(100.0)	253(100.0)	
부모님과의 대화정도	성별		χ^2 (p=)
	남 N(%)	여 N(%)	
많은 대화를 나누고 비밀이야기도 한다.	16(6.6)	19(7.5)	
대화를 나누는 편이고 가끔 비밀이야기도 한다	36(14.9)	81(31.9)	
일상생활 이야기만 한다	147(61.0)	129(50.8)	24.139*** (0.001)
성적등 제한된 주제 외에 별다른 대화 없다	27(11.2)	19(7.5)	
대화 거의 없이 인사만 한다	10(4.2)	5(2.0)	
대화가 전혀 없다	5(2.1)	1(0.3)	
계	241(100.0)	254(100.0)	
지난 1주동안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성별		χ^2 (p=)
	남 N(%)	여 N(%)	
없음	8(3.3)	10(3.9)	
1시간미만	59(24.3)	50(19.7)	
1시간~3시간미만	64(26.3)	70(27.6)	
3시간~5시간 미만	44(18.1)	43(16.9)	3.402(0.757)
5시간~7시간미만	25(10.3)	32(12.6)	
7시간 이상	42(17.3)	49(19.3)	
기타	1(0.4)	0(0.0)	
계	243(100.0)	254(100.0)	

*p<0.05, **p<0.01, ***p<0.001

조사되었으나 아예 한번도 대화하지 않았거나 1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남학생의 27.6%, 여학생의 23.6%로 나타나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더 많은 애정표현과 관심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3. 여성관

성폭력은 많은 연구에서 여성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때문에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녀 평등적 사고를 길러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AWSA를 사용하여 표 5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남녀평등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남녀간의 여성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학교의 여학생은 가장 높은 남녀평등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성지식

중학생의 성지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신, AIDS

및 성병, 성폭력, 성충동 조절에 대한 지식을 주 내용으로 하여 총 26문항을 구성하였다.

성지식 평균점수는 T-test 및 ANOVA 결과 남녀간 학교형태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6에서 같이 성충동 조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형태별로는 여중의 학생이 더 정확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평균 역시 남녀별($p<.001$), 학교형태별($p<.001$)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이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정확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박성정(1996)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지만, 여학생의 성지식 수준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양성숙(1992)의 결과와는 일치되는 것이다.

5. 성태도

중학생들의 성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항목(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 성폭력 피해후 대처태도)에 대해 25개의 문항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세 항목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이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성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교 형태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p<.001$), 이는 남녀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7).

6. 성행동

1) 성적 접촉 경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중생의 60.2%, 여중생의 45.3%, 남녀공학생의 51.9%가 '성적 접촉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여 박성정(1996)의 연구에서 남중생 22.0%, 여중생 27.6%, 공학중 25.8%만이 성적 접촉

표 5. 여성관 평균점수

집단별	여성관 점수	Mean±SD	T값 또는 F값
남학생(N=245)	34.72±3.77	T=-18.40	
여학생(N=258)	40.90±3.67	($p<0.0001$)	
남중생(N=113)	34.73±3.55		
여중생(N=128)	41.41±3.55	F=74.00	
공학중생(N=262)	37.49±4.76	($p<0.0001$)	

표 6. 성지식에 대한 성별, 학교형태별 평균점수

항목	대상별	남(n=243)	여(n=252)	T-value	남중(n=111)	여중(n=124)	공학(n=260)	F-valu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임신		12.49±1.20	13.30±0.91	-8.41***	12.52±1.27	13.44±0.85	12.82±1.11	22.37***
AIDS 및 성병		12.61±1.48	12.81±1.13	-1.69**	12.43±1.82	12.84±1.17	12.76±1.09	3.30*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지식		14.63±1.74	15.25±1.02	12.36***	14.37±2.06	15.22±1.09	15.07±1.21	-4.79***
성폭력 피해후 알아들일		3.53±0.63	3.86±0.36	-7.08***	3.55±0.74	3.90±0.31	3.67±0.49	13.95***
성충동 조절		3.68±0.55	3.66±0.54	0.42	3.62±0.62	3.71±0.52	3.68±0.52	0.78
총 점		46.95±3.90	48.88±2.39	-6.61***	46.49±4.95	49.10±2.42	47.99±2.61	18.91***

* $p<.05$, ** $p<.01$, *** $p<.001$

경험이 없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성적 접촉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 중 '키스 수준 까지를 경험했다'고 남학생의 10.2%, 여학생의 15.1%가 대답하여 여학생이 더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것은 남학생의 경우 애무(5.7%)나 성교(5.3%) 수준의 경험을 여학생(애무: 1.9%, 성교: 1.6%)보다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생긴 차이로 생각된다.

학교 형태별로 성적 접촉 경험을 살펴보면 남중생, 여중생, 공학중생이 키스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13.3%, 14.5%, 12.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애무수준은 각각 8.0%, 2.3%, 2.7%, 성교수준은 8.0%, 0.0%, 3.1%를 나타내 남중생의 경우, 애무나 성교수준의 성적 접촉을 훨씬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녀공학생(6.2%)이 남중생(4.4%)이나 여중생(3.9%)보다 성교를 많이 경험했다고 한 박성정(1996)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2) 성접촉 경험정도에 따른 성지식

성접촉을 하는 정도에 따라 성지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지식 문항 내용을 임신, AIDS

및 성병,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생각, 성폭력 피해후 조치사항, 성충동조절등의 항목으로 묶고 성접촉 수준을 성접촉 계단식 단계에 따라 성적 접촉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집단(group 1)과 가볍게 신체나 어깨 일부를 부딪힌 것에서부터 포옹까지를 경험한 집단(group 2), 키스나 애무, 성교를 경험한 집단(group 3)으로 각각 나누었다. 각 집단간 성지식 전체 평균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group 2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성적 접촉 강도가 높은 집단인 group 3은 전체 평균이나 항목별 점수가 타 집단보다 낮고 표준편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알려주는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신에 대한 성지식 평균 점수는 실제 성적 접촉강도가 제일 높아 임신우려가 제일 높은 group 3의 평균 점수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이들에게 임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피임 등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심도 높은 교육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성태도에 대한 성별, 학교형태별 평균점수

항목	대상별	남(N=197)	여(N=209)	T-value	남중(N=94)	여중(N=106)	공학(N=206)	F-valu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	30.86±5.68	35.54±4.99	-8.84***	30.49±5.82	35.25±5.09	33.52±5.71	18.49***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	31.81±4.33	35.81±5.03	-8.58***	31.68±4.50	35.20±4.76	34.22±5.23	14.08***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처태도	17.84±3.71	19.81±3.30	-5.65***	3.90±1.16	4.41±0.87	4.18±1.00	5.68**	
총 점	80.51±10.91	91.17±10.17	-10.19***	80.13±10.85	90.17±10.28	86.53±11.92	20.24***	

*p<.05, **p<.01, ***p<.001

표 8. 성적 접촉 경험

접촉단계	집단	남 N(%)	여 N(%)	남중 N(%)	여중 N(%)	남녀공학N(%)
	없음	148(60.4)	114(44.2)	68(60.2)	58(45.3)	136(51.9)
성적 접촉 경험	있음					
	어깨 및 신체일부	4(1.6)	4(1.6)	3(2.7)	3(2.3)	2(0.7)
	손잡음	15(6.1)	38(14.7)	6(5.3)	18(14.1)	29(11.1)
	팔짱	15(6.1)	31(12.0)	5(4.3)	18(14.1)	23(8.8)
	포옹	8(3.3)	16(6.2)	1(0.9)	6(4.7)	17(6.5)
	키스	25(10.2)	39(15.1)	9(8.0)	17(13.3)	38(14.5)
	애무	14(5.7)	5(1.9)	9(8.0)	3(2.3)	7(2.7)
	성교	13(5.3)	4(1.6)	9(8.0)	0(0.0)	8(3.1)
	기타	3(1.3)	7(2.7)	3(2.6)	5(3.9)	2(0.7)
	계	245(100.0)	258(100.0)	113(100.0)	128(100.0)	262(100.0)

3) 성추행

다른사람의 성기나 가슴을 그 사람의 동의없이 만져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학생의 62.5%, 여학생의 62.4%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여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형태별로는 '성추행을 한 적이 없음'이 남중 61.1%, 여중 48.4%, 남녀공학 69.9%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10번 이상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남중생의 22.1%, 여중생의 25.8%, 공학중생의 9.1%로 나타났다. 즉, 여중생이 성추행을 한 횟수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남녀공학중의 경우 성추행을 자신이 한 경험이나 횟수가 세 학교중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당한 경험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1).

자신의 성기나 가슴을 누군가가 동의 없이 만졌을 때 '기분이 나빴다'고 남학생의 13.4%, 여학생의 19.0%에서 응답했고 화를 냈다고 대답한 경우도 각각 7.7%, 5.7%였다(표 12). 따라서 장난으로 다른사람의 성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도 성추행에 포함되는 행위임을 알려주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의 가슴이나 성기를 동의없이 만진 사람을 모두 고르라'고 하여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을 가지고 순위를 선정하였다(표 13). 남학생의 경우 동성친구가 79.8%로 가장 많고 이성친구 15.4% 모르는 사람 4.8% 등

표 9. 접촉 경험 정도에 따른 성지식 점수

항목	집단별	group1 (N=262) Mean±SD	group2 (N=131) Mean±SD	group3 (N=110) Mean±SD	F-value
임신		12.79±1.14	13.14±1.09	12.88±1.16	4.15*
AIDS 및 성병		12.75±1.27	12.78±1.10	12.52±1.62	1.35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생각		14.97±1.31	15.06±1.25	14.74±1.97	1.44
성폭력 피해후 알아들일		3.66±0.56	3.75±0.44	3.72±0.57	1.31
성충동 조절		3.71±0.50	3.65±0.55	3.60±0.65	1.62
총 점		47.87±3.06	48.37±2.54	47.46±4.73	2.17

*p<.05, **p<.01, ***p<.001

표 10. 성추행을 자신이 해본 경험

경험	대상별	남 N(%)	여 N(%)	χ^2 (p=)	남중 N(%)	여중 N(%)	남녀공학 N (%)	χ^2 (p=)
없음		153(62.5)	161(62.4)		69(61.1)	62(48.4)	183(69.9)	
무응답		3(1.2)	9(3.5)		2(1.8)	6(4.7)	4(1.5)	
있음								
1번		6(2.5)	6(2.3)	0.06 (0.813)	2(1.8)	2(1.6)	8(3.1)	13.82*** (0.001)
2번~4번		26(10.6)	30(11.6)		8(7.0)	18(14.0)	30(11.4)	
5번~9번		15(6.1)	12(4.7)		7(6.2)	7(5.5)	13(5.0)	
10번 이상		42(17.1)	40(15.5)		25(22.1)	33(25.8)	24(9.1)	
계		245(100.0)	258(100.0)		113(100.0)	128(100.0)	262(100.0)	

*p<.05, **p<.01, ***p<.001 수준임

표 11. 성추행을 당한 경험

경험	대상	남 N(%)	여 N(%)	χ^2 (p=)	남중 N(%)	여중 N(%)	남녀공학 N(%)	χ^2 (p=)
있음		104(42.5)	121(46.9)		46(40.7)	75(58.6)	104(39.7)	
없음		139(56.7)	132(51.2)	1.26 (0.261)	65(57.5)	51(39.7)	155(59.1)	13.72*** (0.001)
무응답		2(0.8)	5(1.9)		2(1.8)	2(0.7)	3(1.2)	
계		245(100.0)	258(100.0)		113(100.0)	128(100.0)	262(100.0)	

*p<.05, **p<.01, ***p<.001

표 12. 성추행을 당했을 때 자신의 반응

자신의 반응	남 N(%)	여 N(%)	χ^2	남중 N(%)	여중 N(%)	공학 N(%)	χ^2
장난이라고 생각했기에 웃고 넘어갔다.	72(69.2)	85(70.2)		29(61.7)	56(73.8)	72(70.5)	
기분은 나빴지만 참고 넘어갔다	14(13.4)	23(19.0)		9(19.2)	13(17.2)	16(15.7)	
어른들께 말씀드려 도움을 청했다.	0(0.0)	2(1.7)	1.235	0(0.0)	1(1.3)	1(1.0)	2.958
화를 내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8(7.7)	7(5.7)	(0.539)	5(10.6)	3(4.1)	7(6.9)	(0.565)
기타	8(7.7)	3(2.4)		4(8.5)	2(2.6)	7(6.9)	
계	104(100.0)	121(100.0)		47(100.0)	76(100.0)	102(100.0)	

표 13. 성추행을 행한 사람들(복수응답)

순위	남(N=104)		여(N=121)		남중(N=46)		여중(N=75)		공학(N=104)	
	N(%)	N(%)	N(%)	N(%)	N(%)	N(%)	N(%)	N(%)	N(%)	N(%)
1	동성친구	83(79.8)	동성친구	103(85.1)	동성친구	36(16.0)	동성친구	67(29.8)	동성친구	83(36.9)
2	이성친구	16(15.4)	이성친구	17(14.1)	이성친구	7(3.1)	모르는 사람	9(4.0)	이성친구	18(8.0)
3	모르는 사람	5(4.8)	모르는 사람	13(10.7)	모르는 사람	4(1.8)	이성친구	8(3.6)	모르는 사람	5(2.2)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추행이 실제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학생에게도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동성친구 85.1%, 이성친구 14.1%, 모르는 사람 10.7%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추행이 전체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10.7%를 차지해 우리의 여학생들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성친구에 의한 성추행도 14.1%를 차지해 올바른 이성교제 및 원하지 않은 성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성폭력 개념 인지정도와 성추행 경험

표 14에서와 같이 아무리 정확한 성추행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동의의 없이 성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했다 하더라도 성추행이다'고 여학생의 40.3%

가 대답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진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가장 높게 대답한 집단이 여학생들이었다.

앞으로는 점점 성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떠드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여 숨기고 적당히 넘겨짚던 성과 관련된 문제도 점점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들도 바뀌고 있어 그동안 장난으로 넘어졌던 일들이 성폭력 내지는 성희롱으로 분류되고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폭력을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만이 최선이다.

성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의식전환, 사회의 인식전환이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올바른 성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7. 성교육

1) 성폭력 예방교육 받은 경험, 시기, 장소 및 민족도
성폭력 예방교육은 남학생의 82.1%, 여학생의 94.6%에서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형태별로 보면 남중생의 70.8%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녀공학의 경우가 95.0%로 가장 높았다.

표 14. 성폭력 개념 인지정도와 성추행 경험

경험유무	성추행 한적		T-value
성지식	있음(N=176)	없음(N=313)	value
Mean±SD(성폭력 개념에 대한 지식)	1.94±0.26	1.93±0.25	0.1905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시기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남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많은 경우가 처음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교육을 받은 장소는 대부분 가정보다는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지금까지 받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불만스럽다'라고 남학생 58.8%, 여학생 79.1%가 대답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기존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더 불만스러워 했으며, 남학생 17.5%, 여학생 10.8%는 '만족스러운 점도 있고 불만스럽기도 하다'고 대답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올바른 성에 대해 알게 되어서'와 '성폭력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를 꼽았고 특히 '올바른 성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절대 성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대답도 있었다. 여학생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만족스러운 이유를 '성폭력 예방방법을 알게 되어서'와 '성폭력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를 꼽았으며 불만스러운 점으로는 남녀 모두에서 '나 아는 내용만 가르쳐주기 때문에'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서'라고 많은 학생이 대답했다(표 16).

2) 배우고 싶은 성교육 내용

학생들에게 가장 배우고 싶은 성교육 내용을 3가지 씩 고르라고 하였더니 남학생들은 이성교제시 예절과 이성과 협조하는 법을 38.8%에서 배우고 싶다고 대답했으며, 성충동을 조절하고 올바르게 성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교육내용은 학생들이 성충동을 올바르게 표출하고 승화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경우 배우고 싶은 성교육 내용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원하지 않은 성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방법을 꼽았다. 기존의 성교육 내용이었던 남녀의 성기구조 및 신체발달은 남녀모두 각각 5%, 3.8%만이 관심을 나타내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신체적 성에 대한 내용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피임법이나 성병 및 AIDS 예방인 것으로

표 15. 성폭력 예방 교육

	남 N(%)	여 N(%)	남중 N(%)	여중 N(%)	공학 N(%)
교육받은 경험					
있음	201(82.1)	244(94.6)	80(70.8)	116(90.6)	249(95.0)
없음	41(16.7)	14(5.4)	32(28.3)	12(9.4)	11(4.2)
무응답	3(1.2)	0(0.0)	1(0.9)	0(0.0)	2(0.8)
계	245(100.0)	258(100.0)	113(100.0)	128(100.0)	262(100.0)
배운 시기					
유치원	2(0.8)	3(1.2)	1(0.9)	3(2.3)	1(0.4)
초등학교 저학년	9(3.7)	9(3.5)	2(1.8)	3(2.3)	13(5.0)
초등학교 고학년	43(17.6)	134(52.0)	21(18.6)	55(43.0)	101(38.6)
중학교 1년	101(41.2)	70(27.1)	38(33.6)	41(32.0)	92(35.1)
중학교 2년	32(13.0)	22(8.5)	15(13.3)	14(11.0)	28(9.5)
중학교 3학년	11(4.5)	6(2.3)	5(4.4)	1(0.8)	11(4.2)
무응답	7(2.9)	2(0.8)	0(0.0)	1(0.8)	8(3.0)
배운 적 없음	40(16.3)	12(4.6)	31(27.4)	10(7.8)	11(4.2)
계	245(100.0)	258(100.0)	113(100.0)	128(100.0)	262(100.0)
배운 장소					
가정	5(2.1)	25(9.7)	1(0.9)	12(9.3)	17(6.5)
유치원	2(0.8)	2(0.8)	1(0.9)	1(0.8)	2(0.8)
초등학교	46(18.9)	127(49.2)	23(20.4)	54(42.2)	96(36.8)
중학교	142(58.2)	88(34.1)	57(50.4)	48(37.5)	125(47.9)
기타	3(1.2)	2(0.8)	0(0.0)	2(1.6)	3(1.1)
무응답	6(2.5)	2(0.8)	0(0.0)	1(0.8)	7(2.7)
배운 적 없음	40(16.3)	12(4.6)	31(27.4)	10(7.8)	11(4.2)
계	244(100.0)	258(100.0)	113(100.0)	128(100.0)	261(100.0)

표 16.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

	남 N(%)	여 N(%)	남중 N(%)	여중 N(%)	공학 N(%)
만족한다.	11(4.5)	12(4.6)	3(2.6)	6(4.6)	14(5.3)
불만족한다.	144(58.8)	204(79.1)	59(52.2)	97(75.7)	193(73.7)
만족스러운 점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다.	43(17.5)	28(10.8)	20(17.8)	15(11.5)	36(13.7)
무응답	7(2.9)	2(0.8)	0(0.0)	1(0.7)	8(3.1)
성폭력에 대해 교육 받은 적 없음	40(16.3)	12(4.7)	31(27.4)	10(7.5)	11(4.2)
계	245(100.0)	258(100.0)	113(100.0)	128(100.0)	262(100.0)

표 17. 배우고 싶은 성교육 내용

성교육 내용	남(N=219)		여(N=239)	
	N(%)	순위	N(%)	순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원하지 않은 성행동에 대한 의사표현방법	56(25.6)	3	170(71.1)	1
이성교제시 예절 및 이성과의 협조	85(38.8)	1	91(38.1)	2
성충동 조절 및 올바른 성 표현방법	71(32.4)	2	51(21.3)	6
성병 및 AIDS	56(25.6)	3	58(24.3)	5
피임법	44(20.1)	4	79(33.1)	3
성윤리 및 책임	42(19.2)	5	61(25.5)	4

(복수응답이며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내용 5순위임)

조사되었다.

3)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및 만족도와 성폭력 항목 성지식 평균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성폭력에 관한 성지식 평균 점수는 17.01였고 '받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평균은 16.48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의 성폭력에 관한 성지식 평균점수는 T-test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22$)。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대답한 집단과 '불만족한다'라고 대답한 집단간의 성폭력에 대한 성지식 또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51$)。

성폭력 예방수칙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6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더니 각 상황에 대한 준수행동 평균점수는 남녀간($p<.001$), 학교 형태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19, 표 20).

성폭력은 더 이상 여학생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91~97년 상반기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는 총1532건의 상담내용중 남성피해가 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국 성폭력 상담소, 1997) 학교폭력이 사회문제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아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폭력 예방수칙의 많은 경우가 학원 폭력피해를

8. 성폭력 예방 수칙 준수정도

표 18.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및 만족도와 성폭력 항목 성지식 평균

상황	성폭력에 관한 성지식 점수	N	Mean±SD	T-value ($p=$)		
					남(N=183)	여(N=227)
성폭력 예방교육 있다	410	17.01±1.28	1.25		17.24±3.51	19.35±2.96
받은 경험 없다	46	16.48±2.85	(0.22)		17.18±5.76	21.17±4.70
성폭력 예방교육 만족한다	89	17.06±1.12	-0.65		31.14±6.93	37.90±6.19
에 대한 생각 불만족한다	281	17.15±1.14	(0.51)		15.30±4.47	18.83±3.74

표 19. 성별 성폭력 예방수칙 준수 점수

집단	남(N=183)	여(N=227)	T-value
	Mean±SD	Mean±SD	
혼자 있을 때	17.24±3.51	19.35±2.96	-6.46***
이성친구 방문시	17.18±5.76	21.17±4.70	-7.43***
외출시	31.14±6.93	37.90±6.19	-10.17***
교통수단 이용시	15.30±4.47	18.83±3.74	-8.50***
엘리베이터 탈 때	6.11±2.34	8.10±1.86	-9.20***
기타	15.96±4.48	20.49±2.93	-11.67***
총 점	102.91±20.22	125.84±17.07	-12.14***

* $p<.05$, ** $p<.01$, *** $p<.001$

표 20. 학교 형태별 성폭력 예방수칙 준수 점수

항목	집단	남중 (N=85) Mean±SD	여중 (N=99) Mean±SD	공학중 (N=206) Mean±SD	F-value
	항목	남중 (N=85) Mean±SD	여중 (N=99) Mean±SD	공학중 (N=206) Mean±SD	
혼자 있을 때		17.11±3.04	19.25±2.90	18.45±3.61	9.70***
이성친구 방문시		15.61±5.57	20.86±4.22	20.07±5.53	27.69***
외출 시		30.28±7.65	37.43±6.02	35.26±7.04	25.58***
교통수단 이용시		14.95±4.75	18.38±3.82	17.51±4.32	15.90***
엘리베이터 탈 때		5.69±2.46	8.01±2.00	7.36±2.13	27.77***
기타		14.75±4.95	20.31±2.86	18.92±3.83	51.01***
총 점		98.40±22.28	124.25±17.02	117.56±20.02	42.25***

*p<.05, **p<.01, ***p<.001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것은 자칫하면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여성에게 돌리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자위행위를 제외한 모든 성행동이 자신 혼자만의 행위가 아닌 또 다른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임을 고려할 때 남녀 모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성폭력 피해감소를 위해 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9. 포르노그래피

중학생들이 얼마나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로, 중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성인만화, 성인용 잡지, 여성잡지 성관련 내용, 로맨스소설, 성인용 비디오, 성인용 전자오락(이상 성인용) 음란잡지, 컴퓨터용 포르노 CD, 음란비디오, 음란전화, 성과 관련된 컴퓨터 통신, 인터넷(이상 음란물), 성을 표현한 영화포스터, 성행동이 나오는 TV프로그램, 기타 등 크게 14가지로 분류 나열한 후 그 중에서 본 적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한 후, 다시 성인용, 음란물, 포스

터, TV프로그램, 기타 등의 항목으로 묶어 그 중 접한 경험이 있는 종류 수를 가지고 통계처리 하였다.

1) 포르노그래피를 접한 횟수

포르노그래피 중, 남학생은 음란물을, 여생은 성인용을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이 얼마나 자주 포르노그래피를 접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 동안 몇 번이나 보았는가'를 물었다. 기간을 여름방학으로 한 것은 이 조사를 9월중에 실시하였기에 '97. 9. 1일자로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어서였다. 실제로 11월중에 대상이 되었던 1개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면접법으로 음란비디오나 술·담배를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도 구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조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계속 구할 수는 있으며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다 있다'고 대답하였다.

여름방학동안 본 횟수(표 21)를 살펴보면 '본 적이 없거나 단 한번 보았다'고 남학생 46.1%, 여학생 66.7%가 대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기는 하였지만 중독 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10번 이상 보았다고 대답한 경우가 13.2%로 여학생 1.0%에 비해 약 13배 이상 높

표 21. 포르노그래피를 여름방학동안 본 횟수

본 횟수	집단	남 N(%)	여 N(%)	남중 N(%)	여중 N(%)	남녀공학 N(%)
	집단	남 N(%)	여 N(%)	남중 N(%)	여중 N(%)	남녀공학 N(%)
없음		82(37.4)	103(49.8)	33(33.7)	53(50.5)	99(44.4)
1번		19(8.7)	35(16.9)	7(7.1)	15(14.3)	32(14.4)
2번~4번		71(32.4)	57(27.5)	24(24.5)	33(31.4)	71(31.8)
5번~9번		18(8.3)	10(4.8)	11(11.2)	4(3.8)	13(5.8)
10번 이상		29(13.2)	2(1.0)	23(23.5)	0(0.0)	8(3.6)
계		219(100.0)	207(100.0)	98(100.0)	105(100.0)	223(100.0)

은 비율을 보였다.

2) 포르노그래피를 처음 본 동기

포르노그래피를 처음에 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남학생 79.6%, 여학생 55.6%가 '또래 친구가 보여주어서'라고 대답하였으며, '대중매체를 통해'라고 답한 경우는 여학생의 22.4%였다. 컴퓨터 또한 중학생의 포르노그래피 노출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남학생 8.9%, 여학생의 13.7%가 컴퓨터를 이용해 최초로 포르노그래피를 보았다고 대답하였다(표 22).

3) 현재 가지고 있는 포르노그래피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포르노그래피 중 남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컴퓨터물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디오물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표 23). 여학생의 경우 가지고 있는 포르노그래피는 로맨스 소설(일명 하이틴 로맨스)이나 잡지 등인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러한 책은 이상적인 여성이 되려면 수동적, 소극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잘못된 여성관을 길러주기 쉽다. 또한 여성의 가치는 얼굴이나 몸매에 의해 결정된다고 혼연중에 가르치며 폭력적 성행동을 여성의 잘못을 응징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그러한 소설이나 잡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성정보를 선택 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워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관은 여성의 성역할을 결정하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학생들이 차지하게 될 사회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Allgood-Merten and Stockard, 1991; Boxley, et al., 1995).

10. 제 변수들의 상관관계

여성관은 학생들의 성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남녀 평등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성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폭력 신화를 믿지 않으며,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적절한 도움과 행동을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Boxley, et al., 1995)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이 없는 경우 성폭력 예방수칙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생들의 여성관과 포르노그래피에의 노출이나 흡연 경험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포르노그래피를 자주 보고($p<.001$) 여러 종류의 포르노그래피를 접해 보았을수록($p<.001$) 그리고 어린 나이에 보기 시작했을수록($p<.05$) 여성의 성역할에 대

표 22. 포르노그래피를 처음에 보게 된 동기(복수응답 포함)

동기	집단		남(N=225) N(%)	여(N=205) N(%)	남중(N=100) N(%)	여중(N=102) N(%)	공학(N=228) N(%)
	남	여					
대중매체 통해...	16(7.1)	46(22.4)	6(6.0)	30(29.4)	26(11.4)		
또래친구와 함께...	179(79.6)	114(55.6)	85(85.0)	58(56.9)	150(65.8)		
컴퓨터 통신...	20(8.9)	28(13.7)	7(7.0)	10(9.8)	31(13.6)		
직접 구했다	25(11.1)	24(11.7)	11(11.0)	7(6.9)	31(13.6)		
부모님의 것 보고..	3(1.3)	22(10.7)	1(1.0)	8(7.8)	16(7.0)		

표 23. 현재 가지고 있는 포르노그래피(4위)

소유유무	성별		남 (N=141)	여 (N=235)	
	없음	N(%)			
있음	순위	대상물	N (%)	순위	대상물
	1	컴퓨터물	34(24.1)	1	로맨스소설
	2	비디오물	31(22.0)	2	잡지
	3	성인용 전자오락	13(9.2)	3	비디오물
	4	성인만화	9(6.4)	4	성인만화

복수응답 포함.

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관대히 넘겼던 포르노그래피는 청소년 성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되어져야 하는 변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는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포르노그래피를 본 종류나 횟수 그리고 시기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태도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주나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적 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예방수칙은 포르노그래피를 적게 본 경우 ($p<.001$), 어린나이에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p<.05$),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적게 피우는($p<.01$) 경우에 잘 지켰으며 그 경우, 올바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성을 유희나 게임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성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강간신화를 믿는 경우 성폭력 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음주경험이나 정도, 그리고 학생의 성적은 예방수칙 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이성과의 성접촉은 포르노그래피를 많이 볼수록($p<.05$)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p<.001$)

그 단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음주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남학생 80%, 여학생 72%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음주를 묵인하거나 술을 직접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관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중학생들 사이에는 시험을 앞두었거나 이성친구와 만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00일주'를 마시는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비행청소년만이 술을 마신다는 기준의 인식과 달리 많은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따라서 '흡연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음주를 많이 할 것이다'는 기준의 믿음과는 달리 술과 담배는 오히려 부적상관을 보였다 ($r=-0.45$, $p<.001$). 이는 술을 마시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이 청소년 건강 및 보건위생상 결코 묵인 가능한 문제가 아니므로 음주나 흡연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이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제언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은 이차성장이 과거보다 빨리 나타나고 학교에 재학중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장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그들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여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요소들

표 24. 제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

변수명	여성관	성폭력 예방 수칙	성접촉 수준	본종류	포르노그 래피 최초 본 시기	횟수	흡연	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	성폭력에 대 한 태도	성폭력 피해 학생 태도	성 태도
성폭력 예방수칙	$r = 0.42^{***}$	$r = 1.00$	-	-	-	-	-	-	-	-	-
성접촉수준	$r = -0.08$	$r = 0.02$	$r = 1.00$	-	-	-	-	-	-	-	-
포르 노그 래피 본 최초 시기	$r = -0.42^{***}$	$r = -0.36^{**}$	$r = -0.16$	$r = 1.00$	-	-	-	-	-	-	-
본 횟수	$r = 0.24^*$	$r = 0.29^*$	$r = 0.02$	$r = -0.34^{**}$	$r = 1.00$	-	-	-	-	-	-
흡연	$r = 0.26^*$	$r = 0.33^{***}$	$r = 0.39^{***}$	$r = -0.30^*$	$r = 0.09$	$r = -0.41^{***}$	$r = 1.00$	-	-	-	-
성에 대한 일반 적 태도	$r = 0.52^{***}$	$r = 0.42^{***}$	$r = 0.04$	$r = -0.32^{**}$	$r = 0.13$	$r = -0.39^{***}$	$r = 0.31^{**}$	$r = 1.00$	-	-	-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	$r = 0.45^{***}$	$r = 0.38^{**}$	$r = 0.20$	$r = -0.22$	$r = 0.20$	$r = -0.41^{***}$	$r = 0.41^{***}$	$r = 0.52^{***}$	$r = 1.00$	-	-
성폭력 피해후 대처 태도	$r = 0.42^{***}$	$r = 0.36^{**}$	$r = 0.05$	$r = 0.12$	$r = -0.05$	$r = -0.27^*$	$r = 0.11$	$r = 0.44^{***}$	$r = 0.48^{***}$	$r = 1.00$	-
성태도 총점	$r = 0.54^{***}$	$r = 0.48^{***}$	$r = 0.12$	$r = -0.26^*$	$r = 0.19$	$r = -0.45^{***}$	$r = 0.36^{**}$	$r = 0.83^{***}$	$r = 0.84^{***}$	$r = 0.74^{***}$	$r = 1.00$

을 제어하고 갈등 해결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의 노력은 너무나 미약하다. 여기에 무분별한 성정보와 추상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성교육은 청소년 성문제 발생을 부추겨 청소년 자신은 물론 성상대가 되는 상대방까지도 위험한 상황 속에 밀어 넣고 있다.

성은 인간본연의 특성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발생은 개인이나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근래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성범죄발생은 우리사회의 인간 존엄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돈 그리고 왜곡된 성가치관과 그 맥을 같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체계적 성교육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구조나 이차성징만을 가르쳤던 기존의 성교육에서 그 영역을 넓혀 대인관계측면을 강조하고 올바른 성정체감 확립 및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남녀평등적 사고를 갖도록 지도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은 단순히 신체적 영역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성행동은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과의 합의에 의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행해져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간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인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계속 증가추세에만 있는 성폭력 발생은 우리 모두가 편견되고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버리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질 때, 사회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과 그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며, 성을 여성이나 약자를 정복하기 위한 무기가 아닌 사랑과 관심의 표현수단으로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할 때에만 줄어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성문제중 특히 성폭력 문제가 저연령화되고 증가되는 현실에서 중학생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1. 중학생들은 비교적 정확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파생될 수 있는 성문제-임신이나, 성병, AIDS-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임시기나 임신의 징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남학생의 49.4%,

여학생의 21.6%였으며, 성병이나 AIDS에 대한 항목 중 이러한 질병들이 반드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을 남학생 35.9% 여학생의 33.3%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잠복기가 있다는 것도 남녀 약 30%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폭력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한국 성폭력 상담소, 1997) 남성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교육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을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확대하고, 내용도 그 동안 가르쳤던 성폭력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 및 파생될 수 있는 성문제들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을 가르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지식은 성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모든 변수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이 단순히 성지식 전달에만 그친다면 '건전하고 올바른 성행동을 유도한다'는 성교육 본연의 목적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2. 중학생들이 어떠한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한 개인의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 형태별로는 여중에 재학중인 여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성을 유희나 게임으로 생각하고 성폭력 또한 장난이나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왜곡된 성태도를 갖도록 부추기는 요소로는 포르노그래피를 들 수 있는데 포르노그래피를 본 횟수가 많고, 많은 종류를 보았을 수록 그리고 노출된 시기가 빠를수록 왜곡된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해당되는 요소중 이성교제 경험이나 성적, 술등은 개인이 갖게 되는 성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담배는 포르노그래피를 접촉하는 정도와 횟수 그리고 성태도와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내 자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유

행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기성세대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포르노그래피에의 노출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통제가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포르노그래피의 우위를 차지 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중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제할 수 없지만 자녀세대에는 컴퓨터가 필수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녀가 컴퓨터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점차 자리를 받게 되면 다른 종류의 포르노그래피는 접하기가 어려워지지만 상대적으로 컴퓨터물은 인터넷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하며 무료로 구하거나 비교적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이 음란 컴퓨터물에 더욱 눈을 돌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4. 중학생들의 성행동을 살펴본 결과 이성과 성접촉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경우가 남학생의 39.6% 여학생의 5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스나 애무, 성교등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학생도 남학생의 21.2% 여학생의 18.6%로 나타나 십대임신이나 성병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성접촉 경험이 비교적 높은 이러한 집단의 성지식 수준은 본 연구결과 다른집단과 같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많은 중학생들이 단순히 장난으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불쾌감과 상관없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성추행을 당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적절한 행동을 많은 학생들이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리의 성교육이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려주었다. 앞으로 중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중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나 좋을대로만 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전전하고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중학생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성교육 프로그램에는 올바른 가치관을 강화하고, 바른 성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원하지 않은 성행동을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중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성교육 내용과도 일치된 것이다.

5. 성폭력 예방수칙은 별 쓸모 없는,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수칙만은 아니다. 성폭력이 가해자의 전적인 잘못이고 단순히 성충동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이 아닌 계획적 악질적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노력이 성폭력 발생을 조기에 또는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즉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은 피해자의 위기대처능력과 기준에 잘 알려져 있는 성폭력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 많은 학생들이 성폭력 예방수칙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학생들이나 높은 수준의 성접촉을 경험한 학생들이 성폭력 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이나 정신병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이, 친한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고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만이 청소년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 성교육은 첫째,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25%~30%에 이른다는 점 둘째, 그 파급효과가 지역사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 셋째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그 효과가 어느 연령층보다도 크다는 점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오늘날 증가하는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지, 자녀의 고민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 홀륭한 역할모델로서 행동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사회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및 성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공간과 놀이문화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 유행환경을 통제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 몫을 다하기 위해 대상자 및 사회의 요구에 맞는 성교육 교과서를 개발하고 성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육성하며, 정규 수업시간에서의 성교육 시간 확보, 단계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시될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구자옥: 중등학교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2. 김미주: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3. 박성정: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4. 서울시 교육청: 중학교 성교육 자료, 1983.
5. 양성숙: 청소년의 성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6. 이은정: 고교생과 고교생학부모의 성의식, 태도, 성교육 요구 시기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7. 최선영: 중등학교 교도교사들의 성교육 및 성상담 의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8. 최순희: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9. 황금주: 여자근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7.
10. 장광미: 아동 성폭력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 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11. 김은주: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연구 -여성 학적 겸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12. 박현이: 비행청소년의 여성관과 성폭력관의 관계, 서강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1996.
13. 장영미, 이시백: 학교 성교육 효과,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1), 1997
14.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지침, 1996.
15. 정무장관 2실: 성폭력예방 지도교육자료, 1996.
16.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성교육, 서울 현문사, 1996.
17. 또 하나의 문화: 새로 쓰는 성이야기, 1996.
18. 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공역: 《성의 심리학》, A. G. Kaplan, M. A. Sedney의 The Psychology and Sex roles,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19. 중등 우리교육 9월호(pp.50-85), 1997.
20. 한국 성폭력 상담소, 건강한 성 만들기, 1997.
21. 중앙일보 1997. 7. 24
22.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과 행복, 1997.
23. Boxley, J. and Lawtance, L. and Gruchhow, H.: A Preliminary Study of Eighth Grade Students' Attitudes-Toward Rape Myths and Woman's Roles. J. Sch Health., 65(3), pp.96-100, 1995.
24. Ireson, C.J.: Adolescent pregnancy and Sex roles. Sex-roles. 11, Nos 3/4 pp.189-201, 1984.
25. Parcel, G.S. and Luttman, D.: Evaluation in Sex Education Applied to Program Planning. J. Sch Health. April. pp.278-281, 1981.
26. Ogletree, R.J., Rienzo, B.A. and Drolet, J.C. and Fetro, J.V.: An Assessment of 23 selected school-based sexuality education curricula. J. Sch Health.. 65(5). pp.186-191, 1995.
27. Parcel, G.S. and Coreil, J.: Parental Evaluations of Sex Education Course for Young Adolescents. J. Sch Health. 55(1). pp.9-12, 1985.
28. Parcel, G.S., Luttman, D., Finkelstein, J. and Nader, P.R.: Sex Concerns of Young Adolescents. Birth and Family Journal. 6(1) pp.43-47, 1979.
29. Allgood-Merten, B. and Stockard, J.: Sex Role Identity and Self-Esteem: A Comparis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ex Roles. 25, Nos.3/4. pp.129-139, 1991.
30. O'Neill, J.M., Egan, J., Owen, S.V. and Murry, V.M.: The Gender Role Journey Measure: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Sex Roles. 28, Nos.3/4. pp.167-185, 1993.
31. Ireson, C.J.: Adolescent Pregnancy and Sex roles. Sex roles. 11, Nos 3/4, pp.189-201, 1984.
32. Griffith-Kenney, J.: Contemporary Women's Health-A nursing advocacy approach-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pp.221-235, 1986.